光海君 代의 宮闕 營建에 관한 연구

洪 錫 珠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朴 彦 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서론

선조25년(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1593년에는 한양을 수복하였으나, 1597년에 발발하여 1598년 종전한 정유재란까지 합하면 7년간 전쟁이 계속되었다. 국력을 수습하여 終戰 7년 뒤인 선조 38(1605)년부터 궁궐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재위기간 내내 창경궁, 창덕궁을 중건하는 외에도 경덕궁과 仁慶宮을 창건하는 등 궁궐 건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재건하기 시작한지 3년 후인 1608년부터 1623년까지 15년 간의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있었던 궁궐 건축의 내용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광해군 대에 있었던 영건 활동과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인적 구성을 밝혀, 당시의 시대상황과 맞물린 건축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光海君 代의 궁궐 영건 활동

2.1. 창덕궁과 창경궁 중건

창덕궁은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으며 그 복구는 선조 41년(1608년)에야 시작되어 광해군 원년(1609년)에 가서 어느 정도 완성을 보고 광해군 3년에 완공을 하였다.

궁이 전소되고 나서 복구가 본격적으로 계획된 것은 선조 38년(1605년)부터였으며 처음에는 경복궁이 복구의 대상이었으나 도중에 창덕궁으로 대상이 바뀌어 선조 40년에는 재목을 조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듬해부터는 공역이 시작된 것이다. 광해군 원년에 궁이 기본적인 시설이 완성되고 난 뒤 다시 광해군 원년에 궁의 기본적인 시설이 완성되고 난 뒤 다시 광해군 2년에 부분적인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졌다.[1]

주요 영건 과정은 표 1과 같다.

이때 창덕궁은 대체로 舊制를 답습하여 복구되었고,[2] 창경궁의 영건도 병행하여 이루어졌

1) 김동욱, 「17세기 창덕궁 내전 조영」,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1992, p.152

2) 광해군일기 2년 2월(己未)條, "창덕궁은 전우가 비록 고제에따라 복구되기는 하였으나 낭이 중첩되고 건물이 겹쳐 있어서 막히고 어두워…"

는데, 창경궁 역시 舊制에 의해서 중건되었다.

창경궁 공사는 광해군일기 8년 11월 16일(癸未)條에, 선수도감 제조와 낭청, 감역관 등에게 하사품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공역이 계속되었고 주요 전각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때 종묘와 더불어 처음으로 궁궐을 복구할 계획을 세웠을 때 원래는 경복궁이 대상이 되었다가 창덕궁으로 바뀌어 공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조선 개국 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경복궁이 法宮[3]이고 창덕궁이 離宮[4]이었던 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달리, 선조 때는 창덕궁은 우선 法宮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는 광해군이 창덕궁에 이어할 마음이 없어서, 창덕궁 완공 후에도 경운궁에 머물자, 창덕궁으로의 이어를 촉구하는 상소문에서 창덕궁을 法宮으로 일컫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은 창덕궁이 여러 차례 사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불길하다 하여 창덕궁으로 이어하길 꺼렸고, 仁慶宮과 경덕궁을 영건하는 과정에서 경복궁의 중건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法宮을 창덕궁으로 삼을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仁慶宮과 慶德宮 창건

광해군은 노산군과 연산군이 폐위되었던 창덕궁으로 가기를 꺼려하여[5], 인왕산 아래에 仁慶宮을 새로 짓도록 하였고, 새문동에 왕기가 있다 하여 慶德宮을 또 짓기로 하였다. 仁慶宮의 공사가 길어지자 慶德宮을 우선 완공하였는데, 仁慶宮이 채 완성되지 않아 왕이 폐위되었다.

광해군일기 7년 4월 6일(寅午)條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경복궁으로부터 閣道를 만들어 仁慶宮에 연결하고자 하였는데…"라는 기사로 보아, 광해군은 慶德宮과 仁慶宮 공사가 끝나면 경복궁을 중건하여 仁慶宮과 연결하고자 하

표 1. 창덕궁, 창경궁의 영건 과정

연대	작업 내용	실록 기사
선조39년 5월 이전	종묘궁궐영건도감 설치	종묘궁궐영건도감이 아뢰기를… (선조실록 39년 5월 27일(갑오)條)
선조39년 6월 17일	궁궐터에 화원, 목수를 보내, 건조해야 할 間架를 품정하여 도형을 그림	"이제 궁궐을 영건함에 있어 반드시 舊基를 살펴본 뒤에야 들어갈 숫자를 알아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空日을 가려서 도감의 당상과 낭청이 액정서의 일을 잘 아는 사람과 畵員, 木手를 데리고 도형을 그려내어 건조해야 할 間架를 품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린 뒤에는 필시 수정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계속 계청하게 하여 주소서.…"
선조39년 7월 20일	전국 각처에 공사에 소요되는 재목을 베어낼 준비를 시킴.	"경기의 벌목낭청과 일을 잘 아는 匠人을 먼저 파견하여 경기와 역내에 재목으로 쓸만한 게 몇 그루인가 일일이 적간하여 치계하게 하고…이는 더없이 큰 일이므로 낭청의 칭호만으로는 존중되지 않을 것입니다.경차관의 칭호를 주어…
선조41년	공역 시작.	
광해원년 1월 1일 이전	창덕궁 인정전 완공	"왕이 원단의 정조제례를 영모전에서 친히 행하고 이어서 인정전에서 망궐례를 행했다."
광해원년 3월	창경궁 환경전 조성.	"…창경궁 환경전과 외랑을 우선 더하여 조성하고 나머지 전각에 들어가는 재목도 마련하는 일을 계하하였다고 합니다.…"
광해원년 5월 이전	창덕궁 선정전 완공	중국 사신 맞이하는 연회.
광해원년 10월	창덕궁 부분적 완공	"역사는 대개 필하였은즉 전의 계사에 의하여 이달 16일부터 정파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사와 상고 동궁수라간 등 약간처는 수장을 이루지 못하였고 축장과 포전 역사 또한 미급한 곳이 있으므로 당해 감역관은 필하고서 물러나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광해 2년	창덕궁의 남은 전각, 창경궁의 일부 전각 조성.	"…대개 창덕궁은 범궁과는 달라서 전각이 많지 않고 전각도 협소하여 평상시에도 궁인을 모두 수용하기에 곤란하여 혹 창경궁에 나누어 들이는 것이다. 지금 왕대비께서 창경궁에 옮기고자 하니 불가불 간략히라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광해 2년 8월 말	공사 완료	"궁궐영건도감과 영건청의 전후 도제조 제조 낭청 이하 공장에 이르기까지 그 작업일의 오래고 짧은 것과 일의 많고 적음을 상세히 誓戒하라"(9월 1일)
광해 3년 10월 4일	창덕궁에 이어.	왕이 창덕궁에 이어하였다.
광해 3년 11월 이전	창경궁 통명전 조성.	"통명전에서 풍정연을 베풀었다."
광해 7년 12월	창경궁 명정전 조성.	명정전의 모난 기둥을 원주로 바꾸어 세워 상량하는 일에 대한 분부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없으니…

3) 국왕이 공식으로 임어하는 궁궐.

4) 국왕이 임시 피우처 등으로 사용하는 궁궐로서, 공식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전 등을 모두 갖춘 궁궐이다.

5) 광해군일기 5년 1월 1일

였는데, 미처 시작하기 전에 反正의 거사가 있었다.

따라서 선조 때 창덕궁을 法宮으로 중건한 것과는 뜻을 달리하여, 광해군 때에는 조선 개국의 法宮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法宮으로 하고, 仁慶宮을 창덕궁에 해당되는 離宮으로 하며, 慶德宮을 창경궁에 해당되는 별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던 광해군이 왕권 확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선 개국의 정통성을 지닌 경복궁과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징으로서 새로운 離宮을 계획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궁궐을 영건함으로써, 왕이 직접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영건도감이라는 특수 부서에 충원하는 과정에서 측근을 무리 없이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仁慶宮은 離宮으로 시작하였고 경복궁 중건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큰 재목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고,[6] 慶德宮도 간소하게 지을 생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화려하게 건축하게 되었다.

仁慶宮에는 중층으로 정문을 두어 明化門이라고 명명하였으며, 正殿은 仁慶宮 내에 청기와를 씌운 두 전각인 弘政殿[7]과 光政殿 중에서 弘政殿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仁慶宮에는 규모가 같은 두 침전을 지었는데, 그 규모는 대조전[8]을 따라서 지었고, 제도는 창경궁의 경춘전과 명광전의 예에 따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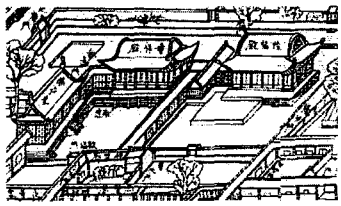

그림 1 . 경덕궁 침전(회상전,융복전)

외침전의 후원에 있는 堂 혹은 閣은 환경전을 따라서 지었다.[9] 그리고, 仁慶宮의 첫째 별당과 셋째 별당을 문명전의 규모대로 지었다. 이처럼 仁慶宮은 대체로 창경궁의 예에 따라 지었는데, 이는 창경궁이 광해군이 등용한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바로 전에 있었던 공역이라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경운궁을 일부 헐어 慶德宮을 짓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일부 전각은 경운궁의 제도를 따랐을 수도 있다.[10]

한편, 仁慶宮에는 조정 신하들을 접견하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며 무사들을 시험보이는 장소로, 못을 파고 慶會樓의 제도에 따라 누대를 지어서, 배를 띄우며 연회할 수 있는 경관을 만들고 그 주변에 별당과 정자를 지으려고 하였으나[11] 인조반정으로 미처 이루지 못했다.

3. 인력 구성

3.1. 영조 조직

광해군대의 영조 조직에 대해서는, 광해군일기 9년 11월 16일(丁丑)條에, "영건도감의 都提調, 提調, 郎廳, 監役官, 兩宮 次知內官 5명에게는 각각 濟州에서 올라온 말 1필씩을 주고, 都廳 3명에게는 각각 말안장 1부씩을 주고, 從事內官 8명에게는 각각 衫兒鹿皮 1장씩을 주고,

6) 광해군일기 9년 4월 27일(辛酉), "이궁의 터가 크지 않으니 적당한 크기의 재목을 쓰는 것이 옳다. 일찍이 사대부의 집을 조성하는 재목과 같은 크기의 재목을 베어오는 일…"

7) 仁慶宮의 正殿으로 사료됨.(인조실록 10년 10월 10일(甲戌)條, "金差의 進香은 마땅히 弘政殿에 나아가 예를 거행하여야 하니, 미리 수리하고 殿門과 正門에 발을 드리워, 엄중히 보이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 광해군일기 9년 6월 21일(甲寅)條

9) 광해군일기 9년 5월 20일(癸未)條.

10) 광해군일기 10년 4월 22일, "慶運宮 누각의 재목, 기와, 鍊石을 헐어 慶德宮으로 이송하는 동안만 새 서대문을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되, 수문장이 각별히 엄하게 지켜 役軍과 匠人들만 출입하게 하라고 分兵曹에 이르라."

11) 광해군일기 14년 12월 3일(甲子)條

표 2. 인경궁, 경덕궁의 영건 과정

연대	작업 내용	실록 기사
광해군 8년 3월 24일	인경궁 터를 보게 함	왕이 性智와 施文用 등에게 인왕산 아래에다 새 궁궐의 터를 잡게 하였다.…
8 년 10월 22일	경복궁 옛 터를 살펴보게 함.	"선수도감 제조 이하 中使가 최준민 및 서울에 있는 술관들과 함께 경복궁의 옛 터를 가서 살펴보고 물어서 아뢰라고 선수도감에 말하라."
9년 1월 18일	인왕산 아래 사직단 뒤편에 새 離宮 터를 잡음.	'현재 쓰고 있는 法宮에 혹 사고가 있을 경우 옮겨갈 곳을 미리 강정해 두는 것이 옳다.…인왕산 아래에다 잘 요리해서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하지 말고…'
9년 4월 26일	인경궁 건물 배치도면을 그림.	"…도제조 이하가 中使와 施文用,,性智 및 여러 술관들과 회동하여 外正殿, 視事殿, 寢殿, 別堂, 夜對廳 등처를 조성할 형지를 상세히 물어서 일일이 상의한 다음 그림으로 그려서 들이라."
9년 5월 15일	인경궁 정전 터를 닦음.	신궐의 조하받는 정전을 15일에 터를 닦을 것입니다.…
9 년 5월	인경궁 침전과 별당 터를 닦음	"신궐의 두 침전의 터를 닦을 날짜를 관상감으로 하여금 가리게 하였더니, 두 침전의 터를 닦는 것은 이달 26일 卯時가, 별당의 터를 닦는 것은 이달 28일 묘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9년 5월 29일	선 수 도 감을 영건도감으로 개편	선수도감의 명칭을 영건도감으로 바꾸었다.
9년 6 월 12일	서별궁(경덕궁) 영건 제의	
9 년 6월	담장 공사	"담장을 쌓는 역사를 다시금 더 감독해서 8, 9월 안으로 공사를 마치게 하라."(9년 6월 21일)
9년 7월 29일	서별궁 이름을 경덕궁으로 함.	"서별궁의 이름을 '경덕궁'으로 정하라고 도감에 말하라.…"
10년 4월 9일	인경궁 정문은 중층, 경덕궁 정문은 단층으로 짓기로 함.	"인경궁의 정문은 돈화문의 예에 따라 層門으로 조상하고, 경덕궁은 그저 잠시 피해 거처하는 곳일 뿐이니 단층문으로 알아서 조상하도록 하라.…"
12년 11월 3일	경덕궁 거의 완성.	"…慶德宮 공사는 대충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13년 1월	인경궁 공사 재개.	"仁慶宮의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애초에 이달 16일로 정했기 때문에…"
15년 1월 20일	인 경 궁 으로 이어할 준비	금년에 새로 지은 궁궐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다.…창경궁에 이어할 때의 규례에 따라…

施文用, 性智, 金馹龍, 朴子羽에게는 각각 제주말 1필씩을 주고, 領役部將, 錄事, 醫員, 畵員에게는 각각 활 1개씩을 주고, 글씨 쓰는 서리 이하 工匠人들에게는 각각 무명 1필씩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전교한 내용과, 광해군일기 9년 11월 10일(辛未)條에, "…도감의 各色, 각부에 있는 낭청 감역관으로부터 아래로 庫直, 書員, 使令에 이르기까지 명색은 감독한다고 하나…"여 개략적인 조직 체계를 알 수 있다.

즉, 광해군 대의 영조 조직은 제조-낭청-감역관 등의 관리직과 편수 이하 木手, 畵員, 瓦匠, 石手, 泥匠 등의 기술직으로 구성된다. 이때, 광해군은 궁궐의 영건에 관하여 시문용, 성지 등의 풍수가와 입지 선정부터 각 전각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우선 상의하고 공사에 들어갔다.[12]

提調는 공사의 총책임자로, 대부분 堂上官이 임명되는데 正一品인 경우를 都提調라 하고 正二品인 경우를 副提調라 한다.[13]

창경궁 선수 도감의 제조는 4명으로 장만, 이충, 심돈, 이병이었고, 이충, 심돈, 이병은 仁慶宮 영건시 그대로 제조로 임명되었다.

仁慶宮을 영건할 당시 제조의 수는 무려 15, 16인에 달했는데,[14] 仁慶宮의 제조와 낭청은 얼마 뒤에 시작된 慶德宮 영건도 함께 하였다.[15]

그러나 광해군일기 10년 4월 15일(癸酉)條에, "…근일 무슨 일이든 전교를 내려도 제조가 너무 많은 관계로 즉시 勘定하지를 못한 채 기회

12) 광해군일기 9년 4월 18일(壬子)條, "離宮의 역사를 시작하는 곳에 여러 술관들과 性智 등을 창경궁을 지을 때의 전례대로 도감에서 대기하게 하고, 물을 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물어서 아뢰라."

13) 김왕직,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42

14) 광해군일기 9년 7월 1일(癸亥)條

15) 광해군일기 9년 6월 27일(庚申)條, "西別宮을 수리하고 조성하는 것이 일각이 급한데 만약 별도로 도감을 설치한다면 폐단이 많아서 일을 쉽게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본 도감의 제조와 낭청이 급급히 나아가서 속히 공사를 시작하라."

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시험삼아 봉상시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가지고 말을 해 보면, 옮길 만한 곳을 지도로 그려서 들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 하교한지 3, 4일이 지나도록 여태 그려서 들이지 않고 있으니,…제조 10여 인이 살펴서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때 제조의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일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적당한 인원이라 할 수는 없다.

제조 밑에는 都廳과 郎廳을 두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중앙관서에서 임명되어 공사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직[16]이다.

광해군일기 10년 3월 5일(甲子)條에, "…대수롭지 않은 公事의 수결도 제조가 반드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지체되곤 하는데, 이 또한 전례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근무에 충실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검칙을 하고 공사 감독이나 수결 등의 일은 都廳에게 전담시켜 하도록 하라.…"는 것과, 광해군일기 10년 4월 15일(甲辰)條에, "각처의 공사 진행을 순시하면서 감독하는 책임은 오로지 都廳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인원은 세 사람 밖에 되지 않는데 兩闕에 나누어 근무하고 있으니 혹 질병이나 사고가 나면 근무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매우 길어져 한창 급하게 匠役을 감독해야 할 이런 때를 당하여 미처 주선하지 못하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니 도청 한 사람을 더 차출하여 돌아가면서 임무를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전교한 내용과, 광해군일기 13년 7월 2일(辛丑)條에, "…都廳의 직임은 낭료들을 단속하는 것이니…"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都廳은 공사 진행을 순시하면서 감독, 수결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광해군일기 1년 4월 24일(乙亥)條에, "궁궐도감 都廳 2원, 郎廳 8원, 監役官 25원을 처음 차출할 때…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십분 세밀히 살펴 시종 노력하여 공로가 있는 자만 가려 그대로 두되, 낭청 8원 가운데 4원, 감역관 25원 가운데 15원을 모두 감원하게 하고, 각자의 소관 내에서 편리에 따라 겸임하게 하소서. 또 도청은 인망이 높지 못하면 능히 단속하지 못하니, 시종신으로서 명망이 있는 자로 개차하되, 2원 가운데 1원은 감원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도감관의 감원과 금박에 관한 일은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애초에는 都廳의 수가 2명이었지만, 후에 3명으로 늘고, 다시 4명으로 늘어났다.

郎廳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낭청은 애초에 8명이었으나, 광해군일기 9년 6월 11일(甲辰)條에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하여서 제조와 낭청이 수백명이나 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인원을 알 수는 없고 都廳의 경우처럼 인원이 상당수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낭청은 고위관리직이지만, 당시 낭청은 실질적인 공사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10년 4월 25일(甲寅)條에, "慶德宮의 침전과 별당은 물론이고 兩殿과 東宮의 침실 및 書筵廳에 낭청만 있거나 혹은 감역관만 있다고 하니, 각 처에 낭청과 감역관을 각각 1명씩 더 차출하여 공사를 감독케 하라.… 慶德宮의 동궁과 별당에는 성실하고 일을 잘 아는 낭청과 감역관을 차출하여 그곳 역시 속히 공사를 시작하게 하라고 도감에 이르라."고 되어 있어, 주요 전각은 낭청이 감역관과 조를 이루어 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역 정도에 따라 낭청만 있거나 감역관만 있기도 하였다.

또한 낭청이 자재 조달을 직접 하기도 하고,[17] 광해군일기 10년 4월 2일(辛卯)條에 보면, "본조가 궁궐의 각 문에 武將이 直宿할 假家를 조상할 일로 계사를 올리자, '…궐문 밖의 別將, 守門將, 內官이 守直할 곳을 상세하게 그

16) 김왕직,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42

17) 광해군일기 12년 6월 7일(癸丑)條, "…근면하고 능력있고 일을 아는 낭청을 뽑아서 재목이 있는 곳에 보내어 금년 안으로 여러 가지로 널리 재목을 사오게 하여…"

려 품한 뒤 조성토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에 즉시 본조 낭청으로 하여금 일을 아는 司僕을 대동하고 가서 형세를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 올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도면을 작성작성하여 올리는 일도 했다.

그리고, 곳간과 같은 곳은 낭청 한 사람이 전담해서 요리하였다.[18]

한편, 監役官은 낭청 밑에서 한 조가 되어 일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는 감역관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광해군일기 10년 10월 7일(壬戌)條에 전교하기를, "인왕산의 城堞과 양궁의 돌난간 공사는 지극히 규모가 크니,…監役官을 별도로 정하여 각별히 공사를 감독해서 역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라."고 하였고, 라는 대목으로 보아, 중요한 전각이 아닌 곳은 監役官이 주도가 되어 진행되었다.

광해군일기 4년 5월 29일(壬戌)條에는, "…瓦署의 경우에는 본 도감의 감역관이 기와와 벽돌을 구워 만드는 것을 전담했기 때문에…"라고 하여, 瓦署를 감역관이 전담하였다고 했으나, 광해군일기 9년 12월 24일(乙卯)條를 보면, 청기와 굽는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 경비만 많이 들어가자, 별도로 낭청과 감역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청기와를 굽는 부서는 郎廳이 담당하였고 일반적인 기와를 굽는 부서는 감역관이 당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사할 때 재목을 쓰는 것도 監役官이 일일이 살폈고,[19] 자재의 수급을 하기도 하였는데, 광해군일기 9년 3월 21일(丙戌)條에, "…監役官을 파견해서 값을 주고 베어 내게 하고, 또 柴木 장사꾼에게 價木을 주어 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대목과, 광해군일기 9년 6월 21일(甲寅)條에, "…牛耳洞의 돌을 떠올 것은 전각을 조성할 大石인데, 鳳橋가 石橋이니 이에서 골라 쓰되, 이러한 돌들은 지금 별도로 監役官을 정하고 수레를 나누어 보내어, 적당히 헤아려서 뜬 다음 실어들이라.…"고 하여,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서의 자재수급이 아닌, 공역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발생되는 요구에 대응하는 자재의 조달을 맡았다.

監役官은 직접 현장의 감독을 맡고 애초에는 25명이었는데, 이 역시 인원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밑으로도 말단 감독관인 領役部將이 있는데, 후에 牌將이라는 직급으로 비뀌었다. 그 외에도 錄事, 庫直, 書員, 使令 등의 관리직이 있다.

한편, 기술직으로는 우두머리 격인 편수가 있고, 그 밑으로 木手, 畵員, 瓦匠, 石手, 泥匠 등이 있다.

慶德宮 공사에 참여했던 목수는 260~270명에 달했고,[20] 瓦匠은 70명정도[21]였다.

목수와 瓦匠 외에는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알 수 없으나, 광해군일기 13년 9월 22일(庚申)條에 보면, 慶德宮 북쪽 삼문을 공사하는 데, 목수 30명, 석수 9명, 募軍 5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여, 그 외의 기술직 인원들도 대거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2. 공사 관리자

(1) 提調, 副提調

광해군일기에 언급된 제조와 부제조의 이름과 활동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제조로 활약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임용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광해군일기에 언급된 시기로 활동 내용을 추정하였다.

이들 중, 李沖은 광해군의 특별한 신임을 받

18) 광해군일기 10년 4월 22일(辛亥)條

19) 광해군일기 10년 4월 24일(癸丑)條, "…殿堂, 月廊, 行廊과 경덕궁에 작은 재목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임의로 마구 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지금 이후로는 各所의 監役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자세히 살펴 쓰게 하라."

20) 광해군일기 12년 6월 3일(己酉)條, "경덕궁의 목수로서 응당 내보낼 자가 무려 2백 60, 70명이나 되지만 내보내지 말도록 하라.…"

21) 광해군일기 10년 4월 26일(乙卯)條, "올해 기와의 수요가 필시 지난해의 배는 될 것이므로 各道에 배정된 瓦匠 및 이름을 적어서…장인의 元數는 70명 가운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가 무려 44명이나 됩니다.…"

았다는데, 李沖이 병이 나자, 공사 감독으로 수고하여 병이 난 것이라고 자급을 올려주었고, 그가 죽자 왕은 이틀동안 朝市를 중지하고, 棺槨을 지급하고 별도로 부의를 전하게 하고 우의정에 제수하였다.[22] 李沖의 아우 李溟은 정인홍의 제자였다. 李沖은 창덕궁 영건시부터 능력을 인정 받았고, 심돈, 이병, 장만과 함께 창경궁을 지을 때 제조로 궁궐 영건에 관여하였고, 심돈, 이병과는 仁慶宮 지을 때 제조로 임명되어, 仁慶宮 터를 잡는데 참여하였다. 광해군일기 7년 12월 21일(癸亥)條에, "…도감 제조가 되어 양궐을 지을 때에 밤낮으로 엄하게 독촉하고 따라서 혹독한 형벌을 쓰니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기를 '이 제조의 매와 남도청의 눈을 조심하라. 남도청은 南以雄을 이른 것이었다'…"라고 하여, 李沖이 얼마나 궁궐 영건에 매진하였나를 알 수 있다.

또한, 제조들 중에서 任兗, 尹暉와 같은 인물들은 당시 후금과의 화의를 주장하여, 임진왜란 때 지원병을 보내 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는 일보다 전후 복구에 힘써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인물들이다.

이처럼 궁궐의 영건도감 제조들이 실리주의자와 관계있는 것은, 영건도감이 긴급 사항에 의해 설치된 특별부서로서 비교적 등용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광해군이 그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기에 편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1년 4월 24일(乙亥)條에, "궁궐도감 都廳 2원, 郎廳 8원, 監役官 25원을 처음 차출할 때 대부분 청탁에 의해 용렬하고 난잡한 무리들을 구차히 충원함으로써…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영건도감을 충원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의정 이이첨과 같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영건도감에 몸담았던 것으로 보아, 광해군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등용하여 세력기반을 확대하는 데 궁궐의 영건을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都廳, 郎廳

영건도감의 낭청으로 특별히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 南以雄, 沈諿, 李爌 등이 있다.

南以雄은 창경궁, 양궁 도청으로, 이충과 더불어 궁궐 영건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심집과 이이첨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다. 南以雄 天文을 잘 알아 관상감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광해군일기 12년 12월 14일(丁巳)條에, "南以雄은 공로가 가장 많으니…"라고 하여 그의 공로를 인정하였고, 후에 부제조로 임명되었다.

沈諿은 병이 들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파직을 요청하는 상소가 올랐을 때에도 왕이 거부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李爌는 죽은 후에 그의 노고에 답하는 의미에서 왕이 관곽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3) 監役官

중급 관리에 해당되는 감역관에 대해서는 고급관리인 제조, 부제조, 도청, 낭청과는 달리, 광해군일기에 언급된 내용이 별로 없다. 단지 표 5와 같은 인물들만 언급되었고, 주요 논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이여항이 있을 뿐이다.

李汝恒은 도감 제조 이병의 조카로, 仁慶宮 중간 정문 공사를 맡아서 했다. 仁慶宮의 중간 정문이 벼락의 재해로 무너졌는데 개조하는 공사를 20일 이내에 이미 끝마쳤고 단청도 선명하여 포상을 받았다.[23]

22) 광해군일기 11년 3월 5일 (戊子)條

23) 광해군일기 14년 9월 10일(癸卯)條

표 3. 提調, 副提調 활동 내용

이름	활동 내용	해당궁궐
閔馨男	선수도감 제조.	창경궁
沈惇	선수도감 제조. 민형남 후임. 인경궁 터 잡는 데 참여.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
李沖	능을 봉축하는 일에서 현저한 공을 세워 선수도감 부제조로 임명. 繕修都監과 欽敬閣 校正 提調. 창경궁을 영건시 제조로 활약. 인경궁 제조로 임명. 觀象監과 繕工監 제조도 겸임했다. 인경궁 터를 잡는데 동참.	창덕궁,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
이병	선수도감 제조.	인경궁, 경덕궁
李爾瞻	예조판서(광해 9/5/23(병술) 대북파	인경궁, 경덕궁
尹重三	영건도감 제조	인경궁, 경덕궁
金閭	영건도감 제조	인경궁, 경덕궁
柳廷亮	영건도감 제조. 이병의 후임자	인경궁, 경덕궁
朴弘道	창경궁 공사 때 都廳. 인경궁(특히 경회루를 모방한 누대) 영건에 관여	창경궁, 인경궁, 경덕궁
柳慶宗	영건도감 제조	인경궁, 경덕궁
任兗	영건도감 제조 이충의 후임. 인조 반정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찬성한 죄로 관작을 추탈되었으나 현종 때 관직이 회복되었다	경덕궁, 인경궁
朴鼎吉	영건도감 제조 尹重三의 후임	
崔瓘	영건도감 제조	인경궁
尹暉	영건도감 제조. 인조 반정 초에 청나라와 和議를 주장한 죄로 벼슬이 깎이고 귀양을 갔으나 후에 벼슬이 다시 회복되었다.	인경궁
趙挺	영건도감 제조. 영의정	인경궁
權綰	영건도감 제조 이병의 후임.	인경궁
沈悅	영건도감 제조	인경궁
趙有道	창덕궁, 창경궁, 양궁 공사 때 都廳. 영건도감 부제조	경덕궁, 인경궁
李升亨	종묘 중건시 감역관 창덕궁 중건시 낭청으로 활약. 부제조로 승진.	창덕궁, 창경궁, 경덕궁, 인경궁

표 4. 都廳, 郎廳의 활동 내용

이름	활동 내용	해당궁궐
南以雄	선수도감, 영건도감 도청으로 활약한 공로가 인정받아 부제조로 승진.	창덕궁,창경궁 인경궁,경덕궁
沈諿	경덕궁, 인경궁 영건시 도청으로 활약하다가 공로가 인정되어 부제조로 임명.	인경궁,경덕궁
柳孝立	영건도감 도청	
奇允獻	도청(都廳). 번와소(燔瓦所)에서 일함.	인경궁,경덕궁
權帖	영건도감 都廳	인경궁,경덕궁
韓師聖	양궁 낭청. 청기와를 많이 생산한 공을 인정받음	창경궁,인경궁, 경덕궁
尹侃	선수도감 감역관. 영건도감 낭청 청기와 생산의 공으로 감역관에서 낭청으로 진급.	창경궁,인경궁, 경덕궁
韓崔	매탄낭청(埋炭郎廳)으로 외방에 파견되어 마음을 다해 공을 이루어 상을 받음	인경궁,경덕궁
愼得義	재목 수급	인경궁,경덕궁
趙繼韓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趙景禛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兪浚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高用厚	영건도감 낭청 경덕궁 동궁 별당의 후원 전당 공사	인경궁,경덕궁
李燔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鄭暘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宋文吉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경덕궁
具長源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북별당 공사	인경궁,경덕궁
閔大倫	영건도감 낭청 경덕궁 금천교 공사	인경궁,경덕궁
權澳	영건도감 낭청. 재목 수급	인경궁,경덕궁
崔應斗	영건도감 감역관과 낭청을 지냄	인경궁,경덕궁
朴弘韶	영건 도감 낭청. 자재 수급	인경궁
李汝惕	영건도감 낭청 인경궁 중간 정문 공사	인경궁
成僖耇	仁慶宮 別堂의 次知郎廳	인경궁
李震英	윤간과 신득의의 후임자	인경궁
金櫓	윤간과 신득의의 후임자	인경궁

표 5. 監役官의 활동 내용

이름	활동 내용	해당궁궐
金命男	선수도감 감역관	창경궁
趙廷純	선수도감 부석감역(浮石監役),明政殿監造官, 사옹원을 營造	창경궁
朴耆俊	영건도감 감역관	인경궁, 경덕궁
尹協	경덕궁 감역관	경덕궁
李正陽	경덕궁 감역관	경덕궁
李汝恒	도감 제조 이병의 조카. 인경궁 중간 정문 공사	인경궁

3.3. 기술자

장인 계층에서 광해군일기에 언급된 인물은 황송룡, 이가응손, 박용수, 석대남이 있다.

黃松龍은 창경궁 중건에 참여했던 목수 중 재주있는 목수로 알려졌다.[24]

李加應孫은 황송룡과 더불어 종묘 중건시부터 공역에 참여하여, 창경궁 중건에 참여했던 재주있는 편수.로 알려졌고,[25] "仁慶宮 공사때 편수로 활약한 공으로 당상관에 오르고 軍職을 받는 등[26] 왕의 총애를 받았다.

朴龍守는 능력을 인정받은 瓦匠으로, 黃瓦 제작법을 연구했다.[27] 특히, 난리를 겪은 뒤 기술이 단절되었던 청기와 굽는 법을 박용수가 유일하게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연구, 제작하였다.[28]

石大男은 어느 분야의 匠人인지 알 수 없으나, 欽敬閣 역사 때부터의 노고를 인정받아, 7품 군직을 부여받았다.[29]

당시의 장인은 군인처럼 나라에서 공사가 있을 때 명단이 올라와 공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던 신분적 위치에서 이들처럼 군직을 받고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4) 광해군일기 8년 8월 27일(乙丑)條
25) 광해군일기 8년 8월 27일(乙丑)條
26) 광해군일기 14년 7월 16일(庚戌)條
27) 광해군일기 10년 4월 23일(壬子)條
28) 광해군일기 10년 11월 4일(己丑)條
29) 광해군일기 11년 4월 10일(癸亥)條

3.4. 풍수가

광해군은 풍수가들을 궁궐 영건에 관여하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施文用, 性智, 金馹龍이 있다.

시문용은 임진왜란 후 남은 漢人으로, 정인홍이 친척과 혼인 시킬만큼 아꼈고, 풍수에 능하다고 왕에게 천거하여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궁궐 영건, 특히 仁慶宮 공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인조 반정 때 참형당했으나 후에 공이 인정되어 추증된 바 있다.[30]

시문용의 뒤에는 정인홍이라는 당시 요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실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있었다.

정인홍은 시문용을 천거했던 일 외에도 提調 이충과 같이 궁궐 영건에 관여했던 인물들과 관련있는 인물로, 광해군 대의 실력자였으나 인조반정으로 숙청당한 인물로, 급진적 개혁파인 남명학파에 속한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스승 조식으로부터 받은 병법 공부와 뛰어난 전략으로 전란에 공훈을 세웠고, 명나라로부터 후금 정벌에 원병을 요청받았을 때 內修를 주장하여 등거리 외교정치를 표방하는 등, 실제적인 학문태도와 사상을 지닌 인물이다.[31] 조선 후기의 서인 일당전제와 봉건왕조의 지나친 中華 사대주의의 현실 온존적인 모습만을 보고 유교 사회정치사상을 역사발전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실제로는 진보적 사림파가 현존하면서 성리학의 유교 정치이념으로 통치한 당시의 현실정치에 대하여 유교 본래의 민본사상을 가지고 적극적 참여와 비판을 하였고 실천을 중시

30) 정조실록 17년 7월 27일(戊午)條, "…본주에 대명동이라고 일컫는 마을이 있다고 들었다. 이는 임진왜란때 우리 나라를 원조해준 중국군 施文用이 살던 옛 터라고 한다. 문용의 아버지 允濟는 兵部에서 벼슬하면서 兵部尙書 石公이 주장한 우리 나라 원조 정책을 힘껏 도왔으며, 문용은 군사 사이에서 숱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 先祖 때는 참판을 추증하면서 '시문용의 후손들을 賤役의 명단에 이름을 두지 말라,'고 전교하셨다.…"
31) 권인호,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서울, p.206~217, 1996

한 철학사상이 있었다.[32]

궁궐 영건의 공로로 첨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던 승려 성지는, 대궐의 내문인 차비문에 출입하여 문제를 일으킬만큼 위세가 대단했다.[33] 그는 선조 때 창덕궁을 중건하였을 때에도 관여하였고, 특히 仁慶宮 공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金馹龍 역시 선조 때부터 궁궐 영건에 관여하였으며, 주로 慶德宮 영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표 6. 풍수가의 궁궐 영건 참여

광해군일기	풍수가	참여 내용
8년 3월 24일	施文用, 性智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 터를 잡다.
9년 4월 26일	施文用, 性智, 여러 술관	인경궁 外正殿, 視事殿, 寢殿, 別堂, 夜對廳 등처를 조성할 形止를 상의하여 그림으로 그려서 입계.(광해군일기 9년 4월 26일)
9년 5월 17일	施文用, 性智	인경궁 外正殿을 조성(정전의 좌향은 성지의 의견)
9년 5월 17일	金馹龍	인경궁 外正殿, 視事殿, 夜對廳 조성
9년 5월 20일	施文用, 性智	인경궁 두 침전.
9년 6월 17일	施文用	인경궁 좌향
9년 6월 21일	施文用	인경궁 양 침전. 지세를 살펴본 뒤에 기둥을 세움.
9년 6월 28일	施文用	인경궁 시사청과 朝賀를 받는 곳 등의 좌향
9년 7월 13일	施文用, 金馹龍	경덕궁의 바깥 담장을 두를 동서남북의 한계.
9년 7월 13일	施文用, 性智	인경궁
	金馹龍	경덕궁
14년 7월 29일	性智	인경궁 가운데 정문

32) 권인호, 앞의 책, p.192~197 참조.

33) 광해군일기 9년 1월 13일(己卯)條, 풍수승 性智가 差備門에 출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풍수는 임금이 숭상할 일이 아니고, 대궐 안은 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4. 건축술

4.1. 기술자에 대한 인식

광해군일기 7년 11월 11일(癸未)條에서는, 광해군이 창경궁 문정전의 각진 기둥을 둥근 기둥으로 바꾸고 싶어해서 장인을 불러 자문을 구한 결과, 기둥나무 및 각종 재목을 거의 모두 다시 마련해야 하고, 주춧돌 역시 다시 설치해야 하고, 四面 前退의 間架도 만약 둥근 기둥으로 고칠 경우 그 사이가 좁아지므로 간가의 척수를 조금 넓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역이 쉽지 않아 금년 안에는 중건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는다.

또한, 광해군일기 8년 8월 27일(乙丑)條에는 광해군이 明政殿을 동쪽으로 물려서 짓고 싶어서, 월대를 물려 쌓는 문제와 보첨을 다는 문제에 대해 장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匠人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는데, 광해군일기 10년 10월 8일(癸亥)條에는 장인을 불러 소요 자재를 계산한 후에 예산을 세웠다.

또, 광해군일기 9년 2월 3일(戊戌)條에는, 재목을 쌓아 두는 방법을 장인에게 물어보아, 나무 껍질을 벗겨 높이 매달아 쌓아 두도록 하였다.

한편, 채색을 무역하는 일에는 화원을 대동하여 색을 검토한 후에 사오도록 하기도 하였다.[34]

이렇듯 전각 조성시의 세세한 기술적 문제 외에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나 자재의 보관과 수급 등 다방면에서 기술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광해군 초에 실학자 이수광이 도승지, 예조참판, 대사헌 등의 요직에 재임했던 것에서도 당시 실학의 태동기에 현실적인 문제, 특히 기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

34) 광해군일기 8년 5월 4일(癸酉)條와 광해군일기 11년 4월 5일(戊午)條 참조.

다.[35]

이는, 이수광이 연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서구 문물을 접하고 온 후, 발달된 기술과 천문학,지리에 대해 전파하고, 밀양의 장인 劉興發은 자명종을 본떠 만드는데 성공하였던 17세기 초의 분위기와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정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실권을 행사했던 정인홍이 실리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술자의 가치 인정도 달라졌는데, 광해군일기 4년 6월 18일(辛巳)條에 보면, 궁궐 영건에 관여한 장인 수가 워낙 많아, 급료를 월등히 삭감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광해군은 "비록 下輩라 하지만 그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이 너무 빈약하다. 다른 상으로 다시 의논해 마련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또한 편수 이가웅손이나 석대남과 같이 이름난 장인들에게는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편수 이가웅손은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얻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광해군 대의 궁궐 영건을 통하여 장인들이 지닌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전 시대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4.2. 인력관리

광해군은 명과 후금과의 관계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던 인물로, 궁궐영건도감을 통하여 실리주의자들을 많이 등용하였고, 당시의 실리적인 사상은 궁궐 건축 공사를 관리하는 데에도 나타난다.

광해군일기 9년 12월 24일(乙卯)條를 보면, 청기와 굽는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 경비만 많이 들어가자, 별도로 낭청과 감역을 설치하여 날마다 낭청과 감역관이 출입하면서 감독하고, 기와를 구운 실적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능률을 올려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약하였다.

또한 당초에 提調가 사소한 일까지 감독, 수결하였던 것을 새롭게 검칙을 하고 공사감독이나 수결 등의 일은 都廳에서 전담시켜 관리 상의 불필요한 단계를 줄였다.

한편, 광해군일기 9년 10월 9일(更子)條에 보면, 못이나 장석을 만드는 일과 같이 섬세한 일을 하는 분야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잘 만든 장인에게 포상을 하였다.

이렇게 공사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4.3. 새로운 기술의 시도

선조25년(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1598년 정유재란이 끝나기까지 7년간 전쟁이 계속되었고, 국력을 수습하여 종묘와 궁궐을 재건하는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또 7년이 걸렸다. 이동안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가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14년동안 대규모 건축 공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기술적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광해군 재위 기간 내내 있었던 본격적인 궁궐 영건 사업은, 전란으로 인하여 건물만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건축술도 퇴보하였을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건축술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해군일기 9년 7월 16일(戊寅)條에, "이번의 이 영건하는 역사는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京匠人들에 대해서 도감에서도 손을 써서 뽑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들은 도리어 장인들을 불러가기까지 하니,…한성부로 하여금 1, 2년을 기한으로 해 집 짓는 것을 엄하게 금지시키고, 때때로 적간하여 아뢰게 하라.…"라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인들을 총결집하여 궁궐 영건에 투입시켰다.

그러나 건축기술인력의 부족은 심각하였는데, 이 무렵에 戰後 혼란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여 사대부 세도가의 집을 짓는 수요가 많았기에, 장인들은 국가 공사인 궁궐 영건보다는 나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사대부 세도가의 공사를 선호하여 궁궐 공사에

35) 주칠성, 『실학파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서울, 1996 참조.

동원되기를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 공사에 동원된 장인은 慶德宮 공사에 참여했던 목수만 해도 260~270명, 瓦匠은 70명정도가 동원될 정도였으니 당시 공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 인력이 대거 동원된 궁궐 공사는 장인들의 기술력이 한데 모여 있었기에, 전쟁으로 인하여 14년 동안 대규모 공사가 없어서 단절된 기술을 부활시킬 기회를 주었고, 때로는 사용하지 않던 기술의 개발도 가능했다.

그 중 하나가 청기와나 黃瓦 같은 사치스러운 건축에만 사용하는 고급 기술이다. 전쟁 직후의 복구 사업에 있어서도, 선조 대에 있었던 종묘를 중건 사업을 보면, 선조 4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선조가 승하한 뒤 광해군 원년에 완공을 한 것을 보아도 신속하고 검소하게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하여 9년이 지나, 仁慶宮과 慶德宮을 영건할 때는 새로운 궁궐을 제대로 짓기로 마음먹었고, 仁慶宮의 주요 전각에 청기와를 씌우고, 중국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던 황와를 씌울 계획[36]을 하여, 고급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광해군일기 11년 1월 8일(壬辰)條에는, "비밀리에 영건도감에 전교하기를, "聖節使 당상 역관 方義男이 청기와와 황기와 굽는 방법을 배워 왔다고 하니, 의남에게 자세히 물어서 만들되 사온 두 가지 색을 넣도록 하고, 사온 염초도 속히 들여와 사용하라.…그 염초를 가지고 속히 청기와를 굽도록 하라. 또 방의남이 사온 수가 다른 역관이 사온 것의 세 배나 된다고 하니, 가자하도록 하라. 그리고 천추사와 성절사의 행차 때에 미리 京師로 가서 황기와 굽는 법을 자세히 배워 오게 하라."고 비밀리에 영건도감에 전교하였다.

또한, 광해군일기 10년 4월 23일(壬子)條에는, "黃瓦 본래의 빛깔을 구워내려고 朴龍守가 살아 있을 때부터 이모저모로 강구하여 여러 차례 실험적으로 제조해 보았으나 모두 원 빛깔을 찾아내는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처음으로 淡黃色 하나를 얻었으므로 그 제조 방식에 따라 재차 갖가지로 시도하여 다시 구워냈더니 전일 보셨던 황와에 비해 빛깔이 더욱 핍진한 기와가 나왔습니다.…"고 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황화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세한 제작법에 대해서 광해군일기 10년 4월 28일(丁巳)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黃瓦의 색깔을 제대로 내는 참다운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한참 고민해 왔는데, 전일 石雌黃을 藥物에 첨가해 넣었더니, 그 색깔이 평시에 만들던 것과 대략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방식에 따라 만들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자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를 않으므로 시장이나 畵員, 譯官 등에게 사들이려 해도 모두 많이 얻을 수가 없으니, 부득이 중국에서 무역해 와야만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삼가 듣건대 …역관 宣得李가 지금 물품을 가지고 요동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니, 도감에서 석자황의 대금을 그에게 지급하여 넉넉하게 무역해 오게 함으로써 제때에 구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석자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화원이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우니 일을 아는 화원 한 사람을 그와 함께 들여보내야 할 것입니다.…황와의 색깔을 제대로 내는 비슷한 방법을 이미 터득했으니 번거롭게 節使 편에 匠人을 보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듯 당시의 기술로 황와를 구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란으로 청기와 제작법이 전란으로 인하여 단절되어 그 기술의 복원에도 힘을 기울이는데, 번와소와는 별도로 청기와 굽는 낭청과 감역관을 두어 특별히 관리하였다.

광해군일기 10년 11월 4일(己丑), 영건도감이

36) 광해군일기 9년 12월 24일(乙卯)條, 왕이 장인으로 하여금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황기와 굽는 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황기와는 천자가 정전의 지붕을 덮을 때 쓰는 기와로, 왕, 후 이하는 참람스럽게 사용하지 못했다.

아뢰기를, "弘政殿과 光政殿[37]의 靑瓦와 雜像 가운데 벗겨지고 떨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靑黃瓦를 굽는 법은 난리를 겪은 뒤 그 眞方을 잃어버렸는데, 지난날 유일하게 朴龍守가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을 주워 모아 만들었지만 그래도 원래 방법을 터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용수가 죽은 뒤로 새로 배운 사람들은 더욱 그 방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한갓 허다한 재료들만을 허비하면서 겨우 모양만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추위가 극심한 날을 당해 비와 눈마저 스며든다면 청색이 벗겨질 걱정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된다면 마침내는 모조리 변해서 적색이 되어 버리고 청색은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매우 걱정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迎恩門과 關王廟는 모두 청와를 구워 만들어 지붕을 덮었지만 벗겨져 적색으로 변한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새로 지은 궁궐의 鷲頭, 龍頭, 雜像은 모두 벗겨져 적색으로 변했으니, 매우 괴이한 일이다.…"하였다. 즉 전란으로 단절되었던 청와 굽는 기술을 다시 전습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해군대의 궁궐 영건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니만큼 신기술의 개발도 있었고, 전란으로 단절된 건축술을 부활시켰다는 데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5. 결론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7년간 전쟁이 계속되었고, 어느 정도 국력을 수습하여 궁궐 공사를 재개하는 데 7년이 더 걸려 14년간은 건축적으로 공백기라고 볼 수 있다. 이 동안 일부 기술이 단절되는 등 건축적인 손실이 많았다. 선조 말에 궁궐을 복구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작업은 광해군 때 와서였다. 이때 광해군은 이미 중건되었던 창덕궁에 이어하기를 꺼려하며, 仁慶宮과 慶德宮을 창건하였으며, 경복궁을 중건할 계획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궁궐을 영건한 데에는, 왕이 직접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영건도감이라는 특수 부서에 충원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인홍, 이이첨 등의 실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천거한 이들과 같은 많은 실리주의자들이 궁궐영건에 관리자로 투입되었고, 기술 분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데, 전각 조성시의 세세한 기술적 문제 외에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나 자재의 보관과 수급 등 다방면에서 장인들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편수 이가웅손이나 석대남과 같이 이름난 장인들에게는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편수 이가웅손은 당상에 해당하는 관직을 얻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공사인력 관리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한편, 黃瓦와 같은 고급 기술을 연구하고, 전란으로 단절되었던 청기와의 제작법도 익혔다.

이처럼 광해군대의 궁궐 영건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욕에 찬 사업이니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술 인력이 투입되어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와 개발이 있었다.

37) 광해군일기 10년 4월 4일(癸巳)條, "인경궁의 弘政殿과 光政殿을 장차 푸른 기와로 덮고 勤政殿의 예에 따라 단청에 쓰는 진한 채색으로 칠하려 하니…"

參考文獻

1. 朝鮮王朝實錄
2. 김왕직,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영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3. 김동욱, 17세기 창덕궁 내전 조영,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1992
4. 권인호, 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1996
5. 주칠성, 실학파의 철학사상, 예문서원, 1996

A Study on the Erection of the Palaces during the Reign of Kwang Hae Kun

Hong, Seok-Joo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Park, Eon-Ko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Abstract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s over and the situation was coped with, Chang-Kyoung Palace and Chang-Duk Palace were rebult, and In-Kyung Palace and Kyung-Duk Palace were built during the reign of Kwang Hae Kun.

Many utilitarians were engaged with the construction as a manager,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improve technology.

As a result, craftsmen were treated so valuable, compared to the past, that they were consulted about the technical problems under construction, the process of making an estimate, and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materials. Moreover, famous craftsmen obtained the government service.

And there were various attempts on organizing and compensating workmen in order to manage them efficiently.

In addition, the know-how of manufacturing a blue tile, which had been failed to succeed due to the war, was revived, and manufacturing a yellow tile, which had not been used, was studied by utilitarians.

Finally, There were many kind of technical attempts and development under the construction of palaces, which gave utilitarians a chance to express their ideas, expected practical science, and assembled craftsmen who had scattered due to the war, during the reign of Kwang Hae Kun